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 첫 주말, 25만명 입장

인근 상권, 몰려드는 손님에 웃음꽃 박람회 첫 날 매출액만 5억 원 넘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이틀 만에 25만 명이 입장했다.

3일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장 첫날인 1일 15만24명, 2일은 오후 6시까지 10만1137명의 관람객이 입장했다.

이는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 개장 2일간 입장객 수 8만 5000여 명(1일차 3만 1553명·2일차 5만 4267명)의 약 3배 정도 되는 수치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안전히 바뀐 정원을 직접 보니 놀랍다", "국제정원박람회로서 손색이 없다. 많은 분들이 순천에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곳곳에 포토존이 넘쳐난다" 등 감탄하며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전국에서 몰리는 관람 인파에 박람회장 주변 상가를 비롯해 순천시 도심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야간경관 역시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택시 등 종사자들은 10월 31일까지 펼쳐지는 박람회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주길 기대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

오래도록 지속되길 희망했다.

2일 첫 율항한 '정원드림호'는 3대의 배가 13차례 운행되며 총 356명이 탑승했다.

60만 평의 정원에서 하루 머무는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계'는 1, 2일 전 객실이 매진됐다. 4월 한 달 예약률은 85%에 이른다.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 역시 이번 박람회로 첫선을 보인 만큼 1일, 8500여 명이 방문했다. 2일 차에도 많은 관람객이 줄지어 기다렸다.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로 이어진 푸른 사계절 잔디광장은 모든 사람이 맘껏 뛰놀고 힐링하기에 충분했다. 그 주변의 26ha(여의도의 1.2배) 면적의 풍덕들 경관정원은 튜립 150만 본과 봄꽃 53만 본으로 구성돼 도심의 꽃의 향기로 가득 채웠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문한 가족들에게는 국가정원 식물원아카데미와 인근 어린이 동물원에 자리한 새, 알파카 등에게 먹이 주는 체험이 인기였다.

이 외에도 오전그린광장 주제공연을 비롯해 국가정원 호수정원, 키즈가든에서는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꽃이 만발한 정원을 음악으로 채운 버스킹 공연과 마임, 매직쇼 등 문화공연으로 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했다.

조직위는 박람회 개장 첫날에만 입장권, 식당, 기념품점, 관람차 등 총매출 약 5억 4000만원을 달성하며 수익사업에도 순항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 정원드림호 운항 매출까지 더해지면 매출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장과 맞붙은 오전동 식당 운영자는 "넘치는 관람객으로 인근 상권이 북적북적해졌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힘들었는데 정원박

람회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는 순천에서 열리지만 여수, 광양 등 인접 도시까지도 낙수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순천은 이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낳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남해안벨트 허브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노 시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쳤던 국민 여러분이 이제는 순천으로 오셔서 힐링하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스마트폰 들고 광양 봄 여행 떠나볼까

광양시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광양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한 '2023. 광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관광안내소, 숙박, 음식점 등 광양 관광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의 위치기반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여행이벤트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광양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검색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스탬프 투어를 실행하며 지정 관광지를 여행하면 된다.

지정 관광지는 총 17개소로 지정 관광지에 접근하면 GPS(위치기반)와 연동돼 자동으로 해당 관광지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지정 관광지 중 4개소를 선택해 투어하고 4개소 완주인증서를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스탬프 투어 코너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총 7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문화관광홈페이지 관광안내 코너의 스탬프 투어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김현근기자

제1회 고흥우주항공배 전라남도 바둑대회 성료 전남 각지의 바둑동호인 300여 명 숨은 기량 맘껏 펼쳐



고흥군은 지난 4월 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회 고흥우주항공배 전라남도 바둑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흥군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바둑협회·고흥군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바둑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를 비

롯해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전국부와 전남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수에 따라 전남일반부는 갑·을·병으로 편성해 총 16개 부문에서 야마추어 바둑인들이 예선 조별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우열을 가렸다.

첫 대회를 치르는 고흥우주항공배는 전남 최강부와 고흥일반부가 동시에 진행됐고 학생부의 경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부문별 세분화 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선양규 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수 한수가 인생과 비유되는 두뇌스포츠인 바둑대회를 우주항공 중심도시인 고흥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고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고흥을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최강부에서는 함영우(무안군바둑협회)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누렸으며, 전남 일반부(갑,을,병)에서는 신중식(고흥군바둑협회)선수, 김성영(목포시바둑협회)선수, 김명일(신안군바둑협회)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여성부에서는 이세나(신안군바둑협회)선수가, 고흥군 최강부에서는 송기주(고흥군바둑협회), 고흥군 일반부에서는 류성권(고흥군바둑협회), 학생부에서는 이용준(행복초) 학생과 안지원(오룡초) 학생이 각각 종목별 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제2회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개최

여수시는 자원순환의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제2회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평가 분야는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가게 운영 ▲아이스팩 분리수거 및 재사용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의 추진실적이다.

평가는 사회단체, 개인, 읍면동, 관공소·의회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 4-9월까지 4개 분야 실천과제 추진실적을 서면과 현장 평가로 추진된다.

시는 평가 결과 대상 단체 300만 원·개인 100만 원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1회 행사에는 단체 13개, 개인 379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선진지 견학 실시

보성군은 지난 3월31일 '진해 균형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축제장을 방문해 제1회 보성세계차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우수 축제를 직접 경험하고, 엑스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진해 균형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을 둘러보며 개막식, 블랙이글스 에어쇼, 부대 프로그램 등의 진행 상황과 관객 동선 안내 등 행사 운영에 초점을 맞춰 관람을 진행했다.

특히, 진해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질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관람하며 소음 대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성세계차엑스포는 국내외 차 문화 교류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통합 축제로 열린다.

보성=김태순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